

보 도 자 료

세계 박물관의 날 기념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 x 즐기다’ 특별전시·체험 프로그램 풍성

전국 18개 기관 16개 프로그램 선정...전시·교육·체험 콘텐츠 다채롭게 펼쳐져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위원장 박미정)와 함께하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International Museum Day)’을 기념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엄 문화축제다. 올해 행사는 5월 한 달간 <뮤지엄x즐기다>, <뮤지엄x거닐다>, <뮤지엄x만나다> 등 3대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펼쳐진다.

이 중 <뮤지엄x즐기다>는 전시·교육·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국 18개 기관, 16개 특별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어 풍성한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소장품 및 예술작품에 담긴 숨겨진 가치를 발굴·재조명하고, 이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관람객이 쉽고 흥미롭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올해 참여 기관들은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관람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각 기관은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적 매개체로서 화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목하며,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통과 포용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5월에는 개성 넘치는 전시와 지역 밀착형 기획전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교동미술관, 김만덕기념관,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모란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소다미술관, 온양민속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이 선보이는 차별화된 기획은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교동미술관 정하나 부관장은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 참여는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과 동시대 미술의 실천이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기획전 《유연한 공간: 공동의 숨》에 대해서는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함께 머무르고 감각하며 질문을 나누는 과정에 가까운 전시”라고 소개하며, “관람객들이 한지를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빛과 공기, 소리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물질로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우제길미술관, 의성조문국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코리아나미술관, 한국자연사박물관, 헬로우뮤지움이 선보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며, 박물관·미술관을 친숙하고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박혜린 학예사는 “올해 처음으로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었다”며, “통합·공존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작은 숲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전시를 더욱 흥미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참여한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한국박물관협회 조한희 회장은 “올해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는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찾고, 각 기관이 간직한 고유한 매력과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기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www.뮤지엄위크.kr)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숲》 ©교동미술관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 (주간기간) 2026. 5. 1.(금) ~ 5. 31.(일), 31일간
 - (개막식) 2026. 5. 4.(월) 14:00(예정), 모란미술관
 - (세부프로그램 운영) 주간 기간 포함 최대 3개월 내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 (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 (주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 (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 (추진 목적)
 - 주간 내 전국 단위의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박물관·미술관 인식 확산 및 문화의 일상화 실현
 - 박물관·미술관 정체성에 기반한 참신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도모
 -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 방향)
 - (2026년 ICOM 주제 연계) ICOM 주제인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를 반영하여 전 세계적 박물관 트렌드와 보조를 맞춘 시의적절한 주제로 운영
 -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획 및 운영
 - (지역 정체성 제고) 각 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콘텐츠 개발하여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특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각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소장품, 특화전시, 지역성 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및 실험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
- (주요 프로그램)
 - (「뮤지엄×즐기다」, 18개관 16개 프로그램)
 - (「뮤지엄×거닐다」, 4개 지역 12회차)
 - (「뮤지엄×만나다」, 50개관 50개 소장품)

<주요 실적('23~'25년)>

구 분	'23년	'24년	'25년
참여관 수	298개관	335개관	361개관
향유자 수	1,018,264명	857,676명	1,330,261명

「뮤지엄×즐기다」 (18개관, 16개 사업) 실험적 방식의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x즐기다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을 주제로 한 창의적 전시, 교육·체험, 워크숍,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16개의 프로그램이다.

□ '뮤지엄×즐기다', 전국 18개 기관 16개 프로그램 선정... 특별전시·체험 풍성

'뮤지엄×즐기다'는 전시·교육·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전국 18개 기관, 16개 특별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어 풍성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소장품 및 예술작품에 담긴 숨겨진 가치를 발굴·재조명하고, 이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관람객이 쉽고 흥미롭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창의적 기획력을 토대로 실험적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단순한 소장·보존의 공간을 넘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대립을 연대의 서사로 전환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모란미술관의 《침묵과 빛 사이》, 코리아나미술관의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헬로우뮤지엄의 《뮤지엄 다이어리》 등 각 기관의 차별화된 기획은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화합의 이정표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모란미술관(경기 남양주)의 《침묵과 빛 사이: Between Silence & Light》는 전통 사찰 공간을 배경으로 장애·비장애·젠더·디아스포라 작가의 비정형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5월에는 개성 넘치는 전시들이 새롭게 문을 연다.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 성동구)의 《물힌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은 행당동 주거지 유적의 도자기부터 오늘날의 폐기 도자까지 4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여 물건의 생애와 재생의 서사를 탐구한다. 교동미술관(전북 전주)은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을 통해 한지를 매개로 장인과 청년예술가가 협업한 공동 전시를 선보인다. 사비나미술관(서울)은 5월 한 달간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를 개최하며, 아픈 동물의 초상·다큐·AI 영상 체험과 동물원 재활 및 도시 습지를 연계해 동물복지에 사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소담미술관(경기 화성)은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를 통해 이주배경·내국인 청소년이 함께 만든 공동의 서사를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로 전달하는 참여형 전시를 진행하며,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경북 경산)은 《상식이 된 파격 - 그때는 힙스터, 지금은 꼰대》를 통해 세대 간 가치의 대비를 드러내는 역사 유물을 흑백 공간으로 연출한다.

지역 밀착형 전시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김만덕기념관(제주)은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를 통해 산지천 길을 직접 걸으며 원도심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자료를 감상하는 역사 체험형 전시를 진행한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 선물'》을 운영하며, 지역 생활용품에 발굴·기록하고 지역 공예가와 주민이 직접 수선한 결과물을 전시한다.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코리아나미술관(서울)은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을 통해 전시 작품을 기반으로 한 케이크 제작·웹 프로그램 체험·공동 워크숍을 운영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 용인)은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을 운영하여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및 인형극 관람 후 재활용 재료로 숲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애니메이션박물관(강원 춘천)은 춘천인형극제와 협력하여 5월 중 《뉴트로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인형극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흥부와 놀부》 상영 후 대형 인형 퍼레이드·인형극 참여·컷아웃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을 함께 선보인다. 의성조문국박물관(경북 의성)은 《조문국 시공간 미션 어드벤처》를 통해 박물관과 고분군 일대를 이동하며 AI 기반 미션을 수행하는 보물찾기와 유물 굿즈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우제길미술관(광주)은 우제길 작품을 모티브로 한 한지콜라주·아트백 만들기·협동 미술활동으로 구성된 《빛을 찾다 나를 보다》을 선보이며, 종이나라박물관(서울)은 제주조랑말박물관과 연계하여 말 종이램프를 제작하고 점등식을 진행하는 《2026 세상을 잇는 '빛의 말' - 종이의 질주》를 운영한다. 한국자연사박물관(충남 공주)은 박물관과 계룡산 자연 관찰 후 만화·디자인·도자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창작하고 전시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 자연을 잇고, 삶을 엮다》를, 헬로우뮤지움(서울)은 미술관 관람·신체놀이·서울숲 생태 체험 후 나만의 일기장을 제작하는 《뮤지엄다이러리》를 각각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 참여관 목록

○ 전시(총8개관)

NO.	기관명	지역	기간	전시명
1	교동미술관	전북 (전주시)	5.5 ~ 5.31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 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2	김만덕기념관 X(유)켈파트	제주 (제주시)	5.1 ~ 8.30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
3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경북 (경산시)	5.12 ~ 8.21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끈대
4	모란미술관	경기 (남양주시)	4.14 ~ 7.26	침묵과 빛 사이 Between Silence & Light
5	사비나미술관	서울 (은평구)	5.1 ~ 5.31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
6	소다미술관	경기 (화성시)	5.6 ~ 7.19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
7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시)	5.2 ~ 5.31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
8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성동구)	5.6 ~ 7.18	물힌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

1) 교동 미술관

- 전시명 :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 기간: 2026. 5. 5. ~ 5. 31.
- 장소 : 교동미술관(전북 전주시)
- 내용 : 아카이브적 전환, 과정 중심 미학을 중심으로 전통과 예술의 원형에 대한 오마주적 시선, 동시대를 향한 겸허한 동행의 제스처를 건네는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 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전시는 미술관이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공감과 공동체적 연대를 이끄는 공공의 공간이자 공론장, 지식 생산의 공동 플랫폼으로 전시, 시각기반 콜렉티브, 공동 연구담론 창출등을 다각도로 전개한다.

한지는 단순한 전통 재료를 넘어, 사람과 시간, 자연의 호흡이 축적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닥섬 유를 삶고 두드리고 건조하는 모든 과정 안에는 인간의 노동과 신체의 리듬, 그리고 환경의 시간이 함께 스며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한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지를 고정된 전통의 이미지가 아니라 감각과 기술, 기억과 연구가 교차하는 동시대적 매체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술관, 예술가, 연구자들이 함께한 이번 협업 과정에서 한지는 평면적 재료를 넘어 빛과 습도,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는 유연한 매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한지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비균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러한 흔들림과 불완전성이 오늘날 동시대 미술이 이야기하는 관계성, 과정성, 생태적 감각과 깊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에서 말하는 ‘유연한 공간’ 역시 단순히 가변적인 전시 구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시장을 하나의 고정된 감상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감각과 기억, 연구와 경험이 흐르며 교차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특정 동선에 따라 이동하기보다, 각자의 리듬으로 머무르고 우회하며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완결된 결과물만을 보여주기보다 연구의 흔적과 제작 과정, 실패한 샘플과 기록물까지 함께 배치했습니다.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와 연구자가 한지를 탐구하며 마주했던 시간과 감각의 층위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작품 사이를 거닐다 보면 종이의 질감과 흔들림, 빛의 투과와 그림자, 반복되는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했고, 이러한 감각적 경험 자체가 ‘공동의 숨’을 체감하는 방식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주의 한지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전통 소재를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 안에 축적된 시간과 기술, 공동체의 기억을 오늘의 언어로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성을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새롭게 해석되는 살아 있는 감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한지는 전주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과 노동, 자연과 환경, 시간의 축적이라는 보편적 감각을 함께 담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를 단순한 전통 공예의 대상으로 소비하기보다, 동시대의 사회적·생태적 질문과 연결될 수 있는 살아 있는 매체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동의 숨’이라는 개념은 지역성과 보편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와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고, 한지 역시 수많은 손의 움직임과 자연의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결국 공동의 호흡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 참여 역시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과 동시대 미술의 실천이 어떻게 공공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은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함께 머무르고 감각하며 질문을 나누는 과정에 가까운 전시입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도 전시장 안에서 한지를 단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빛과 공기, 소리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물질로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작품과 연구의 흔적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 역시 이 공간의 호흡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동미술관 정하나 부관장



교동미술관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 전시 풍경 ©교동미술관

2) 김만덕기념관 x (유)켈파트

- 전시명 :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
- 기간: 2026. 5. 1. ~ 8. 30.
- 장소 : 김만덕 기념관(제주도 제주시)
- 내용 : 김만덕기념관은 2023년부터 조선시대 제주를 대표하는 거상 김만덕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제주항과 산지천을 중심으로, 제주의 상업활동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는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의 상업활동 배경지였던 산지천을 중심으로 현대 예술가들과 협업해 제주 원도심의 상업활동과 문화예술 교류를 소개하는 전시로 김만덕이 ‘도전적인 경영정신’을 통해 육지와 제주를 이었듯 예술과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재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3)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 전시명 :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꼰대
- 기간: 2026. 5.12 ~ 8.21
- 장소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본관 2층 기획전시실(경북 경산시)
- 내용 : 기성세대는 ‘꼰대’로 청년 세대는 ‘철없는 힙스터’로 서로를 규정하는 흑백논리로 단절되고 있는 세대 갈등에 대해, 갈등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대립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긍정적 마찰’이자 ‘혁신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사고의 유연성을 환산하고자 한다. 오늘의 진부한 질서가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었듯, 지금의 ‘힙’한 문화 역시 미래에는 ‘꼰대’의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꼰대》 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힙스터’와 ‘꼰대’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들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

는 시대의 시선을 새롭게 조명한다.

4) 모란미술관

- 전시명 : 침묵과 빛 사이(Between Silence & Light)
- 기간: 2026. 4.14 ~ 7.26
- 장소 : 모란미술관(경기도 남양주시)
- 내용 : 《침묵과 빛 사이》 전시는 '있다'를 주제로 타인을 이해하며 편견과 불안을 넘어 통합과 관용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예술과 일상, 자연과 인공, 성과 속이 함께 하는 미술관 환경 안에서 차별과 혐오의 본질을 직시하고 분열된 세계를 일소하는 체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5) 사비나미술관

- 전시명 :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
- 기간: 2026. 5.1 ~ 5.31
- 장소 : 사비나미술관(서울시 은평구)
- 내용 :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는 아픈 동물의 재활·치유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동물복지·지역 생태·시민교육 융복합 전시이다. 고상우 작가의 푸른색 동물 초상 작품과 아픈 동물의 서사를 바탕으로 실험실·산업·야생·도시 생태 속에서 상처 입은 동물을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재위치시키며 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인간 공동체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한다.

6) 소다미술관

- 전시명 :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
- 기간: 2026. 5.6 ~ 7.19
- 장소 : 소다미술관(경기도 화성시)
- 내용 :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는 관람객이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성찰하는 전시이다. '다문화'를 대상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여 세대와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전시는 견고했던 세계관에 틈을 내고, 그 틈 사이로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섞어내며, 마침내 타인과 손을 맞잡아 이전과는 다른 우리로 거듭나는 4단계의 챕터 구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단계별 인식 변화의 경험을 선사한다.

7) 온양민속박물관

- 전시명 :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
- 기간: 2026. 5.2 ~ 5.31
- 장소 :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시)
- 내용 : 충남지역 마을의 변화하는 생활양식 속에서 가재도구를 비롯한 다양한 일상의 물건들은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과거를 비추는 물건들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관계, 시대적 맥락을 담은 중요 문화자산으로 바라보고 기록과 보존의 필요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은 아산, 예산, 홍성 충남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지역 이야기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의 수선을 통해 쓰임과 기능을 재해석하고 단절되어 가는 마을의 이야기, 지역의 생활 문화를 기억으로 보존한다.

8) 한양대학교박물관

- 전시명: **헨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
- 기간: 2026. 5.6 ~ 7.18
- 장소 :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시 성동구)
- 내용 : 《헨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은 서울 행당동 ‘주개장’ 유적을 중심으로, 도자기가 사용·폐기·재맥락화되는 과정을 통해 ‘쓰레기’와 ‘유물’의 경계를 질문하는 전시이다. 집단적·제도적 판단에 의해 폐기된 근대 도시의 도자기, 개인의 기억 속에서 폐기가 유예된 생활 도자기, 오늘날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버려지는 도자기, 그리고 예술적 실천을 통해 다시 의미를 획득한 도자기라는 네 개의 층위를 통해, 같은 물질이 서로 다른 판단 아래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p>유연한 공간 공동의 숨 Flexible Space Breathing Together</p> <p>2026. 5. 5. ~ 5. 31</p> <p>교동미술관 본관 1·2전시실 2관</p> <p>2026 MUSEUM WEEK</p>	<p>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 FLOWING WATERS WEAVING LIVES</p> <p>2026. 5. 1 - 8. 30</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상식이 된 파주 그때는 파주 지금은 흔해</p> <p>2026 05.12 ~ 08.21</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침묵과 빛 Between Silence and Light 사이</p> <p>2026. 4. 14 (Tue) ~ 7. 26 (Sat)</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교동 미술관</p>	<p>김만덕기념관</p>	<p>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p>	<p>모란미술관</p>
<p>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p> <p>2026. 5. 1 ~ 5. 31</p> <p>사비나미술관</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모두의 평행소설 The coming of us</p> <p>2026. 5. 6 ~ 7. 18</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헌물과선물</p> <p>2026. 5. 6 ~ 7. 18</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헨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Where Things Linger</p> <p>2026. 5. 6 ~ 7. 18</p> <p>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 MUSEUM WEEK</p>
<p>사비나미술관</p>	<p>소다미술관</p>	<p>온양민속박물관</p>	<p>한양대학교박물관</p>

○ 교육(총8개관)

NO.	기관명	지역	기간	프로그램명
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 (용인시)	5.1 ~ 5.31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
2	애니메이션박물관 X춘천인형극제	강원 (춘천시)	5.1 ~ 5.31	뉴트로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 x 인형극 퍼레이드
3	우제길미술관	광주 (동구)	5.1 ~ 5.31	빛을 찾다 나를 보다
4	의성조문국박물관	경북 (의성군)	5.1 ~ 5.31	조문국 시공간 미션 어드벤처
5	종이나라박물관	서울 (종구)	5.1 ~ 5.31	세상을 잇는 '빛의 말' 종이의 질주
6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강남)	5.1 ~ 5.31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7	한국자연사박물관	충남 (공주시)	5.1 ~ 5.31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자연을 잇고, 삶을 엮다”
8	헬로우뮤지엄	서울 (성동구)	5.1 ~ 5.31	뮤지엄 다이어리

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프로그램명: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
- 기간: 2026. 5. 1. ~ 5. 31.(주말 및 공휴일 / 14:40, 16:00)
- 장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경기도 용인시)
- 프로그램 소개: 폭풍이 지나간 뒤, 송이버섯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숲을 만들어요
- 프로그램 내용: 구연 동화 감상, 미술 활동(숲 만들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전시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존과 연결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상설전시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은 ‘지구에 사는 다양한 존재와 공생’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 공간 역시 전시 공간 안에 함께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교육 전후로 전시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통합이나 공존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서적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숲속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함께 움직이며 숲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재구성해 동화구연 형식으로 소개했고, 실사 기반 영상을 함께 활용해 아이들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작은 숲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숲을 이루는 다양한 존재와 공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대상 교육의 특성상 무엇보다 유연한 시각과 공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담당자들은 다양한 기관의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타 기관 벤치마킹과 관련 출장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사례와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관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점 역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누며 준비했으며, 박물관 어린이자문단이 직접 시범수업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전해준 과정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를 더욱 흥미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참여한 가족들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박혜린 학예사

2) 애니메이션박물관 x 춘천인형극제

- 프로그램명: 뉴트로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 x 인형극 퍼레이드
- 기간: 2026. 5. 1. ~ 5. 31. 5월 상시(화-일 10:00 ~ 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애니메이션박물관(강원도 춘천시)
- 프로그램 소개: 국내 최초 인형 애니메이션 상영부터 압도적인 대형 인형 퍼레이드까지, 내가 직접 인형극 주인공이 되어 연기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컷아웃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 보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 프로그램 내용: 공연 및 체험 교육
 - [공연]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 상영 5/5, 인형극 퍼포먼스 퍼레이드 5/5
 - [체험/교육] <나도 흥부와 놀부 인형극 주인공> 5/2, 5/9, 5/16
 - <흥부와 놀부, 종이에서 움직임으로 워크숍> 5/23, 5/30

3) 우제길미술관

- 프로그램명: 빛을 찾다 나를 보다
- 기간: 2026. 5. 1. ~ 5. 31.
- 장소: 우제길미술관 2층 교육실(광주광역시 동구)
- 프로그램 소개: 색면 추상의 대가 우제길 화백의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빛과 색의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표현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미술 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시간
 - 한지 콜라주 클래스: 매주 수, 토 / 13:00
 - 나만의 아트백 만들기: 매주 수, 토, 일 및 어린이날 / 15:00
 - 같이와 가치: 매주 일 및 어린이날 / 13:00

4) 의성조문국박물관

- 프로그램명: 조문국 시공간 미션 어드벤처
- 기간: 2026. 5. 1. ~ 5. 31.(매주 토, 일, 공휴일 13:00 / 15:30)
- 장소: 의성조문국박물관(경북 의성군)
- 프로그램 소개: 박물관이 보물찾기 놀이터로 변신! 가족과 함께 6개 미션을 풀고 3,000년 전 보물을 찾아보세요.

- 프로그램 내용
 - 스마트폰 QR코드 스캔하며 박물관 안팎 6개 미션 장소를 탐험하는 가족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 AI 학예사 “포인트”의 음성 해설을 들으며 고인돌(청동기)부터 국보 탑리리 5층 석탑(통일신라)까지 3,000년의 시간을 여행
 - 미션 클리어마다 보물상자에서 석탑 유물 조각을 획득하고, 6개의 조각을 모아 5층 석탑 모형을 직접 조립·채색하는 만들기 체험

5) 종이나라박물관

- 프로그램명: 세상을 잇는 ‘빛의 말’ 종이의 질주
- 기간: 2026. 5. 1. ~ 5. 31.
- 시간: 5월 상시(월-토 09:30 ~ 18:00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장소: 종이나라박물관, 조랑말박물관(서울시 중구)
- 프로그램 소개 및 내용: ‘빛의 말’ 프로젝트는 종이접기와 스마트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다. 종이접기와 전도성 펜을 활용한 나만의 ‘빛의 말’을 만들고 간절한 소망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멋진 ‘빛의 말’을 만들고 ‘화합의 벽’에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6) 코리아나미술관

- 프로그램명: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 일정 1회차: 5. 9(14:00), 2회차: 5. 16.(14:00), 3회차: 5. 23.(16:00), 4회차: 5. 27(14:00)
- 장소 : 코리아나미술관(서울시 강남)
- 프로그램 소개

‘작품을 먹는다는 건 어떤 경험일까?’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에서 나만의 레시피로 작품을 조합하고, 직접 맛보는 감각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시간
 - 작품의 재료와 형상, 개념을 자신만의 ‘실험 음식 레시피’로 설계해보는 웹 게임(상시 체험)
 - 작품의 재료와 구조를 재해석한 디저트를 함께 먹으며 작품을 다층적으로 경험하는 토크와 움직임 워크숍(기간 중 4회)

7) 한국자연사박물관

- 프로그램명: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자연을 잇고, 삶을 엮다”
- 기간: 2026. 5. 1. ~ 5. 31.(수-일 10:00 ~ 18:00 / 매주 월, 화 휴관)
- 장소 : 한국자연사박물관(충남 공주시)
- 프로그램 소개: 자연의 역사와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를 출발점으로 한 관찰→해석→표현→공유의 과정을 경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자연을 감상에 그치지 않고 창작으로 확장하며, 삶의 기억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과정 중심 활동을 통해 노년층 참여자가 부담 없이 전시에 참여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시간

- 어찌다 만화가: 5.7, 5.14, 5.21 / 09:30

전시 표본과 자연을 관찰해 생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콜라주·프로타주 기법으로 캐릭터를 제작한다. 이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결과물을 전시로 공유한다.

- 어찌다 도예가: 5.8, 5.15, 5.22 / 09:30

암석과 화석을 관찰하며 철화분청사기의 배경을 이해하고, 점토 압흔 및 철화 표현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전시로 공유한다.

8) 헬로우뮤지엄

- 프로그램명: 뮤지엄 다이어리
- 기간: 2026. 5. 1. ~ 5. 31.(수-금 15:00 ~ 18:00, 토 10:00 ~ 18:00 / 일, 월, 화 휴관)
- 장소 : 헬로우뮤지엄,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서울시 성동구)
- 프로그램 소개: 비밀스러운 감정과 이야기를 놀이와 신체활동으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시간 : 4.28, 5.12, 5.19, 5.26 / 14:00, 16:00
 - 비밀일기장 : 어린이_일기장 만들기 / 보호자_그림책 마음읽기
 - 서울숲괴물 : 그린스텝과 함께하는 서울숲 통합프로그램
 - 펠트괴물 : 달팽이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
 - 비밀소리 : 어린이_사운드 드로잉 / 보호자_그림책 마음읽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우재길미술관	의성조문국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코리아나미술관	한국자연사박물관	헬로우뮤지엄

□ 메인 포스터 2종



□ 주요 프로그램 포스터 3종

